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4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녹) 연중 제2주일

2024년 1월 14일 (제2065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토/일(8am~4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3,3ㄴ-10.19

화답송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 9ㄱ)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6,13ㄷ-15ㄱ.17-20

복음환호송 요한 1,41.17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복음1,35-42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또는> 1요한 4,16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믿게 되었네.

[성가]	8시	입당	9	봉헌 512	성체 188	파견 6	
	11시	입당	24	봉헌 340	성체 197, 188	파견 31	
연중2주일	1월 14일(일)		1월16일(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1월 19일(금)	1월 20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황혜정 테레사	이명련 파트리사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사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사	안나요아킴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이창용 레이몬드 이경란 베로니카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련 아네스	안나요아킴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은자 마르토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설날합동위령미사

- 일시 : 2월 4일(일), 11시 미사(당일 8시 미사 있습니다.)
- 설날합동위령미사신청 : 2월 2일까지
- 신청할 때 고인과의 추억의 사진 한 장을 제출해주시면 당일 미사지향 비디오클립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날 행사

- 성모회에서 전 신자 점심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점심 후에 구역대항 척사대회와 젠가대회가 있습니다.

■ 성모회 회의 : 1월 21일(일), 오후 8시 (ZOOM)

■ 예비신자 모집

- 예비신자 신청 : 2월 4일까지 사무실

■ 2월2일(금) 주님봉헌축일 - 초축복이 있습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 1월 20(토) 11시 미사 : 안나/요아킴
- 사목회에서 굴 파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안나/요아킴 연차총회

- 일시 : 1월 20일(토), 오후 12:30, 친교실

■ 봉성체

- 1월 19일(금) : 오클랜드 구역, 유니언구역

■ 1월성경 통독

- 1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로마서 10.1-12,21)

■ 모임 및 회의

- 라스모어/라모린다 : 1/14(일), 12:30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 1/21(일) 1:00 교육관 106호
- 알라메다 : 1/21(일) 오후 5:30, BB BOWL
- 리치몬드/버클리 : 1/21(일) 오후 1:30, 교육관 107호
- 대건회 : 1월 20일(토), 오후 5시, 교육관 107호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이 있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삼칠오-오일사칠)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이안 Franks, 손한석 가브리엘, 김정희 율리엠타, 정화봉 로사,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이상주 카타리나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내 운전 15마일 이하
- ② 식탁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주의

■ 2024년 교무금 책정

- 2024년 1월28일까지 교무금 책정서 작성하여 교무금 수납봉사자/사무실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지오 전단원 피정

- 1월 27일(토), 산호세 성당

■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 문의

- 친교실에서 본당 청년/하상회에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해줄 예정입니다.

■ 성경 전체 필사 노트 전시

- 정순자 에디나 자매님 성경 전체 필사를 하셔서 제단 앞에 봉헌 전시해놓았습니다.

■ 사목회 개편

사목회 부회장 : 이범준요셉, 유인웅다윗(신)
 총무 : 지창민시몬(신), 교육 : 오자영효임아네스(신)
 전례음악 : 이재우야고보(신), 친교 : 송성숙아네스(신)
 환경생태 : 권창모미카엘(신), 황금빛인생 : 이명란아네스(신)
 사무장 : 주정희마리아(신), 시설 : 조현석프란치스코(신)
 대외 : 김재호임마누엘, 전례: 조관식분도, 청년:전진형알렉스
 선교 : 황혜정데레사, 홍보 : 이순열안드레아,
 사회복지 : 이영길안드레아, 여성 : 이은자마트로나
 평협 : 최대연다니엘, 구역 : 김문환베드로

■ 본당 사무실 직원 교체 및 사무장 임명(무급)

- 사무실 근무일은 토/일요일 오전 8시~ 오후 4시
- 본당사무장/회계 : 주정희 마리아 자매님

■ 한국학교 교사 연수

- 날짜 : 1월 14일(일)-15일(월)

■ 이스라엘성지순례 대책회의

- 일시 : 1월 14일(일), 오후 1시, 성당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육아가다 자매님이 개인건강상 헤어컷 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자매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오르겐 구입과 친교실 식탁자 구입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안토니오 (1/17) : 이동재, 이종주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놀라운 신 하느님

신 부님,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해 냉담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죄고 짐이네요."

많은 신자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자녀들 신앙일 것이다. 자녀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겠다고 할 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할 때,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들이 정말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혹시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상 속의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지?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은 하느님 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신부님, 신앙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자연재해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록 하느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혹시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깊은 산 연못 속의 산신령님을 떠올리는 것은 아닐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아기적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릴 때에는 하느님을 대체로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리지만, 시간이 지나 하느님과 친숙해지며, 그분을 무서운 분보다는 친구처럼 가까이 계신 다정다감한 분, 인생길에 동행하는 분으로 알게 된다.

누군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난다. 교회와 삶을 오가며, 우리는 조금씩 자기만의 하느님 상을 깨뜨리고, 교회가 알려주는 하느님을 알게 되며, 우리 삶 안에 살아 계신 분으로 직접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크신 구원 계획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직접 만나 알게 된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삶의 주인이자 목적으로 고백하게 된다.

해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허름하고 누추한 말구유에 누워 계신 한 아기 앞에 선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하느님의 탄생을 경축한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느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느님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듯 저 먼 하늘 위에 머물며 우리를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 오신 하느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시다.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교묘히 피하시거나 인간의 '겉모습'만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 죽을 운명까지도 당신 것으로 하신 하느님이시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시기 위해서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잠깐 왔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신화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 '육화' 곧 인간의 육을 취하시고,(요한 1,14 참조) 인간과 하나 되는 방식을 택하셨다. 화려한 성전이나 궁전이 아닌 허름하고 위험천만한 마구간을 택하셨다. 화려하고 밝은 도시가 아닌, 어둠과 쓸쓸함이 뒤덮고 있는 우리의 일상 안으로, 그늘진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인간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위해,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을 돌보시고 함께 운명을 나누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누워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놀라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각자가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토록 놀라운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톨릭평화신문, 2024년 1월 1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43명		162명		205명				
주일 헌금		2차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 시오	황금빛 인생
8시 미사	교중미사	8시 미사	교중미사							
[교무금] 소명환(1-4), 최진두(1-5) 김원덕(1), 천종욱(1), 김영길(1), 임석호(12), 이주황(1-12), 김복희(1-2), 최정안(1-2), 최윤기(1), 이종규(7-12), 김영민(11-12)					조진행, 최윤기 이종규, 김영민	신미카엘라 임희숙	소명환, 조진행 조용숙, 최윤기		조용숙 김복희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14(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14(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 /아네스		생	임희숙 세트리다	임세트리다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임희숙 세트리다	신정열 울리에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병휘 안토니오	샌리엔드로구역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전문자 수산나	박동신 세레나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신정열 울리에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생	전한나 안젤라	전데레사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전경화 아네스	전데레사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생	이영기 마테오	이마테오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이선미 에스더	이영기 마테오
	연	김마르코	가족		생	권주선 다니엘	이영기 마테오
	연	김정탁 요셉	자녀들		생	권영섭 요셉	이영기 마테오
	연	김화순 안나	자녀들		생	심연자 테레사	이영기 마테오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생	이범준 요셉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신진남 엘리사벳	김문환 베드로		생	차영화 리디아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신진남 엘리사벳	임유지 비비안나		생	송인숙 수산나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신진남 엘리사벳	김엘리사벳		생	명만희 모니카	임유지 비비안나
	연	변상원/박인규	원광희 프란치스코				
	연	최익수	원광희 프란치스코	1/16(화)	연	최정자 쟼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김재성 제이슨	김케넷스가족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연옥 영혼	이에스터		연	이성조 마리아	허세실리아
					생	임희숙 세트리다	허세실리아
				1/17(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생	주임신부님	익명		연	박희영	이베로니카
	생	이명란 아네스 가정	익명				
	생	이명진 다투 가정	익명				
	생	이은자 마트로나 가정	익명				
	생	송성숙 아네스 가정	익명	1/18(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생	이선미 에스더 가정	익명		생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지영남
	생	장희숙 루시아 가정	익명				
	생	주정희 마리아 가정	익명				
	생	김상실 가를로 가정	익명				
	생	천종욱 다니엘 가정	익명	1/20(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연	신진남 엘리사벳	김문환 베드로
					연	이건용 요셉	임유지 비비안나
					생	실버반원	채토마스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236-0550 강 요 한</p>	<p>폴킴 & 김영선 안젤라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	---